

한국 문갑 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미의식과 선호*

Aesthetic Perception and Preference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Document Chest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조교수 박 영 순

연구조교 성 해 숙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 **Young Soon Park**

Research Assistant; **Hai Sook Seong**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조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 of the Korean document chest, mungab through the literature and market survey and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on characteristics of the mungab. It also attempts to find out the aesthetic perception of the type of mungab by us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A pilot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the types and pictures of the mungab. Three types and six pictures of mungab were selected. Six hundred homemakers of middle and upper class residing in Seoul area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and 449 among the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result of pilot test, the 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mungab were classified into naive type, unique type, and elaborate type.

2) It was found that the modernized style of traditional mungab was preferred predominantly. The most preferred surface material of mungab was wood grain and the next one was Najonchilgi. In the characteristics of decoration which was symbolic pattern, Ship-Jang-Saeng was predominant. In wanting style when they buy, the modernized style of traditional Korean chest was predominant, too.

3) Young and low income group preferred modern style using transparant paint and Sa-Goon-Ja, Letters in the symbolic patterns of decoration. Old and high income group preferred traditional style using splendid and expensive materials and Ship-Jang Saeng in the symbolic decoration.

* 본 연구는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4) Compared with types of mungab in aesthetic perception, modern style of the traditional mungab was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traditional style. The young and low income group perceived the naive type and unique type positively, but the old and high income group perceived the elaborate type the most positively.

I.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인간의 미의식은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정도와 특성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현대에 와서 인간의 평등화와 물질적 풍요로움이 증대됨에 따라 대중의 미의식과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 시대에 있어 소비자의 미의식은 의·식·주의 모든 생활문화에 나타나고 있으나, 그중 인간과 건축환경을 연결시켜 주는 주된 매개체로서의 가구는 미의식의 일면을 파악하는데 대표성을 지닌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한국가구의 유형을 보면, 그 수요가 극히 제한된 조선말기의 유품과 그 유품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복제품, 그리고 그 원형을 본따면서도 현대인의 취향과 생활환경에 맞도록 개조된 것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중 현대생활에 맞도록 개조된 유형은 재료·장식·문양·크기 및 비례 등에 있어 현대인의 미의식과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물론 가구 전문분야에 있어서도 아직 우리의 전통가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생활문화를 계승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으나, 무엇이 전통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또 현대인의 미의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으로서 전통성을 상실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성을 근거로 한 새로운 디자인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한국가구의 종류에는 장·농·반다지·문갑·함 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장이나 농과 같이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면서도 그 형태나 크기, 구조가 변한 것이 있

고, 고비·뒤주 등과 같이 그 기능의 상실로 인해 현재는 거의 제작되지 않는 종류도 있다. 그러나 문갑의 경우 명칭은 물론, 전통형에서 현대형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형태나 생활양식이 많이 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태나 크기는 거의 바뀌지 않은채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문갑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형과 현대형에 대한 선호와 미의식을 조사하는 것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미의식을 살펴보는 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갑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의 미의식과 선호를 파악해 봄으로써 현대생활에 실용성과 심미성을 더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전통가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가구 중 문갑의 종류를 수집하여 그 유형과 형태를 분류한다.
- 2) 사회인구학적·물리적 환경배경에 따른 문갑 특성별 선호를 파악한다.
- 3) 문갑에 대한 유형별, 형태별 미의식을 분석한다.

2. 용어의 정의

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일반적으로 시대적 변천에 따른 가구의 양식적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구의 유형을 원형적 전통유형, 현대적 전통유형, 현대유형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원형적 전통유형은 전통적인 고가구나 고평가구의 원형을 그대로 복제한 유형을 말한다. 현대적 전통유형은 전통가구를 현대적 용도와 감각에 맞도록 변형시킨 유형을 말한다. 현대유형은 전통가구와 무관하게 현대적 용도와 감각에 맞게 디자인된 유형을 말한다.

2) 문갑 형태

형태는 일반적으로 선, 형, 색, 질감, 문양 등 대상이 지닌 모든 조형요소에 의한 종합적 특성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갑의 형태는 그림에 의해 판별될 수 있는 형, 선, 장식문양에 의한 시각적 특성으로 그 뜻을 국한한다.

III. 이론적 배경

1. 문갑의 특성

조선시대는 신분제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제한했으며, 유교의 내외사상으로 인해 남녀의 거실공간도 안방과 사랑방으로 구분되었다. 가구도 역시 안방용과 사랑방용으로 나뉘어졌는데, 기능에 따른 가구성격의 분리보다 사용자에 따른 가구성격이 형성되었으며, 문갑도 이러한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이 구분되어진다.

문갑은 조선조의 실내가구배치에 있어서 탁자와 더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가구로, 중요 서류나 기물을 깊숙이 보관하는 외에 문방생활용구를 넣어 두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얹어 장식하는 가구로 사용되었다(박영규, 1982). 이러한 기능을 지님으로 해서 자질구레한 일상용품들이 어지럽게 놓이는 것을 피하고 실내를 정갈하게 비워두려는 선비정신에 근거하여 문갑은 사랑 및 서재용 가구로서 주요한 몫을 차지하였다(이종석, 1986).

문갑의 형태는 수평 혹은 수직이 강조된 장방형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선적인 특성을 지닌다. 문갑은 수장하는 문방구 자체가 매우 잡다한 것이어서 그 형태도 다양하다. 보통은 외문갑과 쌍문갑으로 분류되고, 형태에 따라 크게 책(冊)문갑과 난(亂)문갑으로 구분되어진다.

문갑의 형태는 그 기본적 용도로 말미암은 의상이 뚜렷이 보인다. 첫째로 수납물의 정리와 분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칸을 나누었기 때문에 정면의 면분할이 잘고 평선에 의한 규칙적 분할을 한 것이 보통이다. 둘째로는 수납물의 크기와 양에 따른 수납장소의 크기를 달리 잡아 대소공간의 조합이 잘 어울린다. 셋째로는 설합 등으로 완전히 밀폐시켜 수납하는 경우가 있어 이 두 가지가 재미있는 배열을 보인다(천병옥, 1976).

크기면에서 보면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높이가 30 cm 안팎이다. 이것은 평과식 생활에서의 동선범위, 시선의 위치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창문의 문지방 높이를 넘지 않는 것이다(이종석, 1986). 원형적 전통유형과 현대적 전통유형의 컷수를 비교해 보면 현대적 전통유형의 컷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세로(앞쪽)이 길이가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의 크기나 양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문갑에 사용된 문양과 장식을 보면 단순한 무늬에서부터 장식성이 강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문양이 다양하다. 문양사용의 목적은 단순히 장식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나 의지를 나타내 보이려는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다(배만실, 1977). 따라서 선비의 청렴과 강직함을 나타내는 사군자나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등의 문양이 사용되었고, 호운과 길조를 나타내는 문자로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목리문만을 특질로 살린 형태도 많다.

안방용 문갑은 그 구조와 외형에서 여성들의 취향에 맞게 주로 화사한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떡감나무 등의 아름다운 자연 목리를 살린 것이나 자개, 화류를 사용하고, 장식은 백동이나 놋쇠장식을 이용하여 섬세함과 정교함을 보여준다. 사랑

<표 II-1> 원형적 전통유형과 현대적 전통유형의 문갑컷수 비교

| 원형적 전통유형* | | | 현대적 전통유형** | | |
|-----------|----------|----------|------------|----------|----------|
| 가 로 | 세 로 | 높 이 | 가 로 | 세 로 | 높 이 |
| 62~120 cm | 16~30 cm | 25~40 cm | 85~130 cm | 33~43 cm | 40~43 cm |

* 참고 : 배만실, 「이조목공가구의 미」, 서울 : 보성문화사, 1983.

** 연구자가 측정된 것임.

방울 문갑은 선비들의 문방생활에 적합하도록 소나무·오동나무 등을 사용하여 매우 곱소하고 안정감있게 꾸며져 있다(박영규, 1982; 배만실, 1983).

2. 가구에 대한 선호와 미의식

가구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는 의사결정단계에서 고려되는 최우선 순위로써 소비자 선택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Engel의 2인(1968)은 사회적 계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소유물로 주택을 들고 그의 중요한 것에 개인이 받은 교육정도, 의복, 가구 및 가전기기를 포함시켰다. 최목화(1979)의 연구에서는 고가구에 대한 관심은 응답자들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가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오승혜(1983)의 연구에서는 거실가구의 경우 가구유형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현대적인 유형을 더 선호하고, 30대 이후는 모두 고전적인 유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독립변인과는 무관하게 고전적인 유형과 현대적인 유형에 대한 선호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으나 고전적인 유형의 가구를 약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는 시각적 대상물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가구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미의식을 근거로한 주관적 태도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가구유형에 대한 미의식을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는데 근본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

미의식은 쾌적한 시각적 관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즉, 인간은 감각에 주어지는 모든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데, 색, 형, 질감 등의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정한 조화나 질서 또는 비례에 의해 배열되었을 때 비로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된다(Pye, 1983). 한편, 이러한 미의식은 역사의 과정에서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동이 많은 현상으로서 주변환경이나 민족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어 시대의 여건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는 문화적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Reed, 1961). 따라서 각 민족은 그들 나름의 문화와 미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의 미의식은 이전 시대의 것과 상이한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미의식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온 민족적 요소인 민예(民藝)의 저변으로 자리왔으며, 생활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감각으로 고유한 내용을 간직해 왔고 예술진반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황만영, 1974). 특히 조선시대의 사랑방 가구는 그 시대 그 공간의 주인이었던 양반의 독특한 미의식인 격(格)에 의하여 규제되고 세련되어 질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가구들이 현대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고유한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룩하는 것을 한국적 미의식에서 우러나온 보편성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대인의 전통가구에 대한 미의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현대생활에서 실용성과 심미성을 더해 줄 수 있는 현대적 전통가구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1. 예비조사 및 도구작성

1) 예비조사

본조사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개발을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갑이 지닐 수 있는 대표적 특징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유영희(1986)의 연구에서 사랑방가구 표현어휘의 요인분석(Ⅱ)중 요인부하치 값이 .40이상인 어휘를 이용하여 9가지의 특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랑방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요인부하치가 낮게 나와 제외된 화려함을 추가하여 <표 Ⅲ-1>과 같이 총 10가지의 대표적 특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얻은 문갑의 그림과 사진을 가지고 10가지 특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원형적 전통유형과 현대적 전통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도구의 일반화를 위해 크기와 표현방법을 일치시켜 모두 그림으로 옮겨 그렸다.

〈표 Ⅲ-1〉 전통가구의 대표적 특징

| 대 표 특 징 | |
|---------|---------|
| 1 | 독특한 느낌 |
| 2 | 차분한 느낌 |
| 3 | 소박한 느낌 |
| 4 | 품위있는 느낌 |
| 5 | 정교한 느낌 |
| 6 | 간결한 느낌 |
| 7 | 변화있는 느낌 |
| 8 | 전고한 느낌 |
| 9 | 단정한 느낌 |
| 10 | 화려한 느낌 |

본 연구에서 실제 가구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소요경비가 많고, 시장조사 결과 사진촬영조건 등이 좋지 못하여 그 대안으로 그림을 선정한 것이다.

특징에 상관없이 임의로 그림을 배치하여 1987년 7월 21일에서 23일까지 대학원생과 주부 4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을 보면서 10가지 특징중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특징의 해당번호 하나만을 쓰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각각에 대한 빈도수를 조사하여 그중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느낌을 그 그림의 대표적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하나의 그림에서 한가지의 특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특징이 함께 나타났다. 따라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끼리 그 특징을 묶어 살펴본 결과, '소박·간결·단정', '변화, 독특', '정교·품위·화려'의 세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같이 묶여진 특징들은 그 특징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빈도수를 합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6개의 문갑그림을 본 조사를 위한 도구로 선정하였다.

2) 의미분별척도를 위한 어휘선정

가구에 대한 미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Osgood과 Suci(1957)가 개발한 의미분별척도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어휘는 이연숙(1983), 박영순(1985), 유명희(1986), 이연숙·오찬옥(1986)의 연구에서 대상물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어휘

중 그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하여 최종 16개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16개 어휘에 해당하는 반대어휘를 선정한 후 그 사이에 7점척도를 두었다.

3) 조사도구의 작성

예비조사를 통하여 그림과 어휘를 선정한 후 본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구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에 관한 일반사항과, 물리적 환경변인으로 주택의 유형, 주택의 사용실태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문갑의 선호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문갑의 유형, 표면재료 특징, 문양종류, 그리고 새로 구입할 경우 원하는 유형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미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정된 그림 6가지와 어휘 16쌍을 가지고 그림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사전조사 및 본조사

1) 사전조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내용이 응답자들에게 이해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21일에서 24일까지 주부 5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내용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등¹⁾을 대상으로 임의로 5개등을 선정하고,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2개교와 대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1987년 10월 14일에서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480부(80%)를 회수하였고, 그중 449부(93%)를 자료처리에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1)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한국부업의 작업대와 수납장의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 Ⅲ", 1985, p.15에서 유증무선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뽑은 42개동중임의로 선정하였다.

처리했으며, 연구내용별로 빈도, 백분율, χ^2 -test, factor analysis, F-test를 사용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주부의 연령은 40대가 44.3%, 30대가 38.7%로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4.8%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20~40만원 미만인 경우(5.4%)와 120만원~140만원 미만인 경우(5.2%)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14~20%) 분포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중산층 이상의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빌라, 연립주택)가 71.4%로 가장 많았다. 주택의 사용상태는 안방의 경우는 좌식(70.9%)을, 거실의 경우는 입식(60.7%)을, 식당의 경우도 입식(72.9%)을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방만은 아직 재래의 생활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안호협(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문갑의 특성별 소유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선호를 파악하였는데, 문갑의 유형으로는 현대적 전통유형(55.5%)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다음은 현대유형(26.7%), 원형적 전통유형(17.6%)의 순이었다. 표면재료는 투명칠을 사용하여 복리문을 살린 경우가 43.1%로 가장 많고, 나전칠기를 사용한 경우(30.9%)도 많았다. 문양의 경우는 불로장수문의 의미하는 십장생문(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이 24.3%로 가장 많이 선호되고, 문양이 없는 경우도 21.0%를 차지하였

다. 앞으로 문갑을 새로 구입할 경우 원하는 유형은 현대적 전통유형(54.0%)이 가장 많아 현재 소유상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형적 전통유형과 현대유형은 같은 비율(23.0%)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현재의 소유형태가 앞으로의 선호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인구학적·물리적 환경배경에 따른 문갑의 선호분석

사회인구학적·물리적 환경배경에 따른 문갑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사용하였으며, 변인간에 유의적으로 나온 결과는 <표 IV-1>과 같다.

1) 주부의 연령에 따른 문갑의 선호

주부의 연령에 따른 문갑의 선호는 문갑유형, 표면재료, 문양종류, 새로 구입할 경우 원하는 유형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문갑유형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현대유형을, 40대이후는 전통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면재료에서는 20대는 등나무를 더 선호하고, 30대는 나뭇결을 살린 투명칠이나 옷칠, 40대와 50대는 화자이나 나전칠기로 장식된 문갑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문양의 종류를 보면, 20대는 사군자, 문자형, 기하학문을 선호하고, 30대는 문자형과 문양이 없는 것을 선호하였다. 40대는 십장생문, 꽃과 새, 산수문 등을 선호하고, 50대는 십장생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과 밀접한 전통문양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갑을 새로 구입할 경우, 20대와 30대는 현대유형을 더 원하고, 40대와 50대는 현대적 전통유형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

<표 IV-1> 사회인구학적·물리적 환경배경에 따른 문갑선호의 차이검증 종합분석

| 사회인구학적·물리적 환경배경 | | 문갑의 특징 | | | |
|-----------------|---|--------|------|------|------------------|
| | | 유형 | 표면재료 | 문양종류 | 새로 구입할 경우 원하는 유형 |
| 연 | 경 | * | * | * | * |
| 교 | 육 | | * | | |
| 수 | 수 | | * | | |
| 소 | 준 | | * | * | |
| 주 | 특 | | * | | |
| 택 | 유 | | * | | |
| 안 | 형 | | | | * |
| 방 | 태 | | | | |
| | | | | | * |

* 변인간의 χ^2 -test를 한 결과 유의수준 $p < .05$ 이하에서 차이를 나타낸 경우를 말함.

났다.

2) 주부의 학력에 따른 문갑의 선호

주부의 학력에 따른 문갑의 선호는 표면재료에 있어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학력이 높을수록 화장이나 나전칠기, 등나무 등 독특하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 문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에 따른 문갑의 선호

조사대상 가정의 소득에 따른 문갑의 선호는 표면재료와 문양종류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표면재료에 있어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나무결을 그대로 살린 투명칠이나 옷칠, 유색 페인트칠을 한 문갑이 더 선호되고,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옷칠이나 나전칠기를 사용한 문갑이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에 따른 선호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 고가의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일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양의 종류에 있어서는 월평균 소득이 20만원~60만원미만인 경우는 문자형이나 기하학 문양이 더 선호되고, 80만원~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문양이 없는 것이나 심장생문이 더 선호되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상인 경우는 산수문이나 심장생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갑에 사용된 표면재료의 특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택유형에 따른 문갑의 선호

주택유형에 따른 문갑의 선호는 표면재료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아파트거주자는 투명칠이나 옷칠된 문갑을 더 소유하고 있고, 양옥거주자는 나전칠기를 사용한 문갑을 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주택유형은 현대적 양식이지만 그 안에서 사용되는 가구에는 우리의 전통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안방의 사용실태에 따른 문갑의 선호

안방의 사용실태에 따른 문갑의 선호는 새로 구입할 경우 원하는 유형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안방이 좌식인 경우는 현대적 전통유형

을, 입식인 경우는 원형적 전통유형과 현대유형을 그리고 절충식인 경우는 현대유형의 문갑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문갑유형별 미의식 분석

문갑유형별 미의식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16쌍의 의미분별척도에 의해 측정된 미의식의 차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6개의 문갑 그림 각각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 세번째 요인은 그 성격이 뚜렷하지 않아 제외시킨 결과, 조사된 미의식은 두개의 주요 차원으로 구분지을 수 있었다.

첫번째 요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미의식의 평가차원(評價次元), 두번째 요인은 대상이 갖는 잠재적인 힘을 나타내는 역능차원(力能次元)²⁾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따라서 조사된 미의식은 이와같이 두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 문갑유형 및 형태에 따른 미의식

각 문갑형태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7점까지의 점수를 주어 조사한 결과의 평균 점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현대적 전통유형에 대한 미의식에 있어서 평가적 차원을 보면, 세가지 형태가 모두 중간외쪽에 위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소박한 형태의 경우는 '차분하다', '안정감이 있다'에서 그 점수가 높고 '아름답다', '세련되어 있다'에서 그 점수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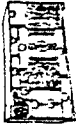
정교한 형태의 경우는 '아름답다'가 다른 것에 비해 높게 평가된 반면 차분함에서는 그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미의식의 역능적 차원은 예비조사 결과에 의해 구분된 것과 같이 소박한 형태는 약간 단조롭고 수수하게, 정교한 형태는 다른 것에 비해 어느정도 장식적이며 화려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조사대상자들이 가구를

2) 장동환,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 9집, 1964 pp.191에서 한국어의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공간의 차원을 '평가차원', '역능차원', '정신적-사변적 차원', '활동차원'의 네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IV-2〉 문집에 대한 미의식의 요인분석 결과

| 내 용 | 요 인 1 | | | | | | 요 인 2 | | | | | | 요 인 3 | | | | | |
|-------------|-------|------|------|------|------|------|-------|------|------|------|------|------|-------|------|------|------|------|------|
| | 문집 1 | 문집 2 | 문집 3 | 문집 4 | 문집 5 | 문집 6 | 문집 1 | 문집 2 | 문집 3 | 문집 4 | 문집 5 | 문집 6 | 문집 1 | 문집 2 | 문집 3 | 문집 4 | 문집 5 | 문집 6 |
| | 단순하다 | .09 | .45 | .19 | .42 | .33 | -.27 | -.16 | -.35 | -.03 | -.31 | -.36 | .12 | .59 | .47 | .72 | .57 | .54 |
| 차분하다 | .41 | .71 | .60 | .71 | .67 | .10 | -.08 | -.24 | -.01 | -.11 | -.04 | .30 | .62 | .31 | .51 | .39 | .24 | .70 |
| 아름답다 | .51 | .66 | .66 | .73 | .65 | .51 | .39 | .29 | .33 | .24 | .35 | .35 | .10 | .18 | .11 | .15 | .08 | .43 |
| 풀워있다 | .69 | .75 | .72 | .75 | .74 | .50 | .25 | .19 | .28 | .23 | .32 | .44 | .19 | .04 | .10 | .20 | -.02 | .42 |
| 투박하다 | .08 | .16 | .21 | .12 | .18 | .61 | .81 | .73 | .62 | .79 | .66 | .27 | -.01 | -.01 | -.11 | .17 | .25 | .02 |
| 번화있다 | .06 | .17 | .11 | .02 | .13 | .68 | .74 | .76 | .71 | .82 | .65 | .24 | -.10 | -.01 | -.09 | .15 | .16 | -.06 |
| 자연스럽다 | .66 | .75 | .74 | .74 | .64 | .31 | .08 | .11 | .20 | .05 | .28 | .53 | .15 | .01 | .12 | .19 | .11 | .38 |
| 안정감이 있다 | .63 | .79 | .75 | .75 | .75 | .33 | -.18 | .00 | .02 | .11 | .91 | .51 | .33 | -.03 | .14 | .11 | -.03 | .47 |
| 정교하다 | .34 | .42 | .35 | .46 | .38 | .68 | .54 | .50 | .54 | .43 | .57 | .20 | .00 | -.09 | .04 | -.08 | -.07 | .22 |
| 친근감이 있다 | .75 | .78 | .75 | .77 | .69 | .43 | .16 | .11 | .20 | .12 | .33 | .59 | .04 | -.05 | .14 | .16 | .01 | .25 |
| 시원스럽다 | .39 | .65 | .58 | .62 | .54 | .05 | .18 | .10 | .23 | .10 | .06 | .66 | .21 | .08 | .25 | .24 | .34 | .32 |
| 화려하다 | .01 | .06 | .14 | .24 | .24 | .79 | .78 | .77 | .71 | .64 | .69 | .05 | -.08 | .02 | .05 | -.22 | -.16 | .02 |
| 장식적이다 | .11 | .10 | .08 | .14 | .15 | .77 | .68 | .74 | .69 | .76 | .64 | .12 | -.14 | -.03 | .06 | -.18 | -.12 | -.05 |
| 현대적이다 | .10 | -.13 | .29 | .14 | .01 | .03 | .67 | .28 | .38 | .04 | .11 | .30 | -.06 | .28 | .13 | .18 | .55 | .04 |
| 세련되어 있다 | .58 | .66 | .61 | .69 | .50 | .46 | .37 | .38 | .43 | .26 | .47 | .62 | -.14 | -.09 | .11 | .07 | .13 | .16 |
| 균형감이 있다 | .60 | .75 | .67 | .72 | .49 | .41 | -.01 | .15 | .21 | .12 | .47 | .53 | -.10 | -.23 | -.00 | .04 | -.12 | .25 |
| Eigen Value | 4.41 | 5.69 | 5.97 | 5.95 | 5.75 | 6.27 | 2.59 | 2.62 | 1.76 | 2.45 | 1.66 | 6.27 | .58 | .46 | .56 | .41 | .69 | .39 |
| 설명 변량(%) | 60.9 | 64.9 | 72.0 | 67.5 | 71.0 | 74.9 | 31.9 | 29.9 | 21.2 | 27.8 | 20.5 | 20.5 | 7.2 | 5.2 | 6.88 | 4.7 | 8.5 | 4.6 |

—요인부하치가 값이 .40이상인 어휘를 나타냄.

| 문감유형 미의식 | 원래적 진통유형 | | 원형적 진통유형 | |
|--------------|--|--|--|--|
| | 아주 정도 어느 정도 | 아주 어느 정도 | 아주 어느 정도 | 아주 어느 정도 |
| 평가적차원 미의식 | 차분하다 | 산만하다 | 차분하다 | 산만하다 |
| | 아름답다 | 추하다 | 아름답다 | 추하다 |
| 일반경향 | 풀위있다 | 지속하다 | 풀위있다 | 지속하다 |
| | 자연스럽다 | 어색하다 | 자연스럽다 | 어색하다 |
| 가구형태 | 안정감이 있다 | 안정감이 없다 | 안정감이 있다 | 안정감이 없다 |
| | 친근감이 있다 | 거부감이 있다 | 친근감이 있다 | 거부감이 있다 |
| | 시원스럽다 | 담답하다 | 시원스럽다 | 담답하다 |
| | 세련되어 있다 | 유치하다 | 세련되어 있다 | 유치하다 |
| | 균형미가 있다 | 균형미가 없다 | 균형미가 있다 | 균형미가 없다 |
| | 독특하다 | 평범하다 | 독특하다 | 평범하다 |
| | 변화있다 | 단조롭다 | 변화있다 | 단조롭다 |
| | 정교하다 | 투박하다 | 정교하다 | 투박하다 |
| | 화려하다 | 수수하다 | 화려하다 | 수수하다 |
| | 장식적이다 | 꾸밈없다 | 장식적이다 | 꾸밈없다 |
| |  |  |  |  |
| | A : 소박한 형태 (—) | B : 독특한 형태 (.....) | A : 소박한 형태 (—) | B : 독특한 형태 (.....) |
| | C : 정교한 형태 (-.-) | | C : 정교한 형태 (-.-) | |

<그림 IV-1> 문감유형에 따른 미의식의 일반경향

보면서 느끼는 미의식의 역능적 차원은 보다 공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형적 전통유형에 대한 미의식에 있어서 평가적 차원을 보면 세가지 형태가 대체로 중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특한 형태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역능적 차원에서는 현대적 전통유형과 마찬가지로 문갑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문갑유형별 미의식

(1) 연령에 따른 미의식

소박한 형태에 있어서는 현대적 전통유형의 역능적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대적 전통유형을 더 단순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한 형태의 평가적 차원에서는 현대적 전통유형의 경우 「시원스럽다—답답하다」의 경우만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가장 시원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가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능적 차원에서는 현대적 전통유형의 경우 ‘화려하다—수수하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가장 화려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적 전통유형의 경우는 ‘장식적이다—꾸밈없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가장 장식적으로 느끼고 40대가 가장 덜 장식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한 형태에 있어서는 원형적 전통유형의 ‘차분하다—산만하다’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가장 산만하게 느끼고 50대가 가장 차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수준에 따른 미의식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6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도식화하여 비교하는데 용이하도록 국민학교·중학교, 고등학교·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대학원의 세그룹으로 묶어 조사하였다.

소박한 형태의 평가적 차원에서는 원형적 전통유형의 ‘품위있다—저속하다’, ‘자연스럽다—어색하다’, ‘시원스럽다—답답하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은 약간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역능적 차원에서는 현대적 전통유형의 ‘독특하다—평범하

다’, ‘정교하다—투박하다’, ‘화려하다—수수하다’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적 차원과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독특한 형태의 평가적 차원에서 현대적 전통유형은 ‘시원스럽다—답답하다’, ‘세련되어 있다—유치하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원형적 전통유형은 ‘차분하다—산만하다’, ‘품위있다—저속하다’, ‘자연스럽다—어색하다’, ‘안정감이 있다—안정감이 없다’, ‘친근감이 있다—거부감이 있다’, ‘시원스럽다—답답하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유형 모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능적 차원에서는 원형적 전통유형의 ‘장식적이다—꾸밈없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이 더 장식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교한 형태의 경우 역능적 차원에서 현대적 전통유형의 ‘화려하다—수수하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더 화려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에 따른 미의식

소득은 교육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20만원~60만원 미만, 6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의 세그룹으로 묶어 살펴보았다.

소박한 형태의 평가적 차원에서는 현대적 전통유형의 ‘시원스럽다—답답하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시원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능적 차원에서는 현대적 전통유형의 ‘독특하다—평범하다’, ‘변화있다—단조롭다’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평범하고 단조롭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한 형태의 평가적 차원에서는 현대적 전통유형의 ‘품위있다—저속하다’, ‘친근감이 있다—거부감이 있다’, ‘시원스럽다—답답하다’, ‘세련되어 있다—유치하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적반응을 보이며 소득이 낮은 그룹이 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원형적 전통유형의 경우는 ‘아름답다—추하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한 형태의 역능적 차원에서 현대적 전통유형의 '독특하다—평범하다'와, 원형적 전통유형의 '정교하다—투박하다'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약간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중간그룹인 경우가 더 독특하고 정교하게 느끼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이 더 평범하고 투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전통가구의 형태는 크게 소박한 형태, 독특한 형태, 정교한 형태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형태는 여러 조형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양하지만 그것에서 느끼는 느낌은 종합되어 느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문갑특성에 대한 선호의 일반경향에 있어서, 유형은 현대적 전통유형이 가장 선호되고, 표면재로는 목리문을 살린 칠이나 나전칠기를 사용한 문갑이 주로 선호되었다. 문양은 불로장수를 의미하는 십장생문이 가장 선호되었으나 특별한 문양없는 목리문에 대한 선호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현대유형보다 현대적 전통유형의 선호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써 현대인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는 일면과, 현대감각에 맞는 전통적인 가구에 대한 선호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문갑의 선호를 보면, 연령에 있어서 20대와 30대는 현대유형의 단순한 칠종류를 선호하고 사군자나 문자형, 기하학문을 사용한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이후는 전통유형의 화려한 장식성을 띤 화각이나 나전칠기를 선호하고, 십장생문이나 산수문등의 자연과 밀접한 문양을 더 선호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투명칠을 하여 목리문을 살린 문갑을 더 선호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옷칠이나 화각, 나전칠기를 사용한 문갑을 더 선호하였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투명칠에 사군자나 문자형으로 장식된 문갑을 더 선호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는 화각이나 나전칠기의 십장생문이

나 산수문으로 장식된 문갑을 더 선호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되어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문갑의 선호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젊은층의 경우 그들의 미의식이나 소득의 한계에 의해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단순한 형태의 현대유형의 문갑을 선호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유형의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 문갑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문갑을 새로 구입할 경우의 선호양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문갑과 같은 유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소유상태가 앞으로의 구매유형을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선·형태·문양만으로 미의식을 조사한 결과 소박한 형태는 소박하게, 독특한 형태는 독특하게, 정교한 형태는 정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의 디자인 요소로도 전체적인 미의식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갑의 유형에 있어서는 현대적 전통유형이 원형적 전통유형보다 미의식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이로써 현대인은 전통적인 것을 선호하기는 하나 원형적인 것을 그대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된 전통형을 선호하는 미의식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세가지 형태의 문갑에 대한 미의식을 보면, 소박한 형태와 독특한 형태에 있어서는 연령·교육수준·소득이 낮을수록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정교한 형태의 경우는 연령·교육수준·소득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미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소비자에 적합하고 각 계층별, 연령별 미의식이 반영된 가구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옥, "이조시대 사랑방가구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2.
 김유순, "한국의 전통적 미를 적용한 현대거실가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

- 대학원, 1985.
- 박영순,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디자인 평가도구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서울: 삼성출판사, 1982.
- 배단실, "조선후기 목공가구에 나타난 장식문양의 의장적 분석",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9집, 1977.
- 배단실, 「이조목공가구의 미」, 서울: 보성문화사, 1983.
- 손미자, "이조시대 죽재가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9.
- 안호협, "아파트의 가구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77.
- 오승혜,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 유영희, "조선시대 사랑방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미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 이연숙, "Aesthetic Evaluation of Alternative Housing", Ph. D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1983.
- 이연숙, 오찬옥, "아동실 환경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권 2호, 1986, 4.
- 천병옥, 「한국전통의장자료」, 서울: 보신재, 1976.
- 최복화, "현대생활에서 고가구의 용도분류와 고가구 관심도 조사연구: 이조시대 가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9.
- 황만영, "이조서민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민속적 조형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4.
- Alexander, H.H., M.A. Alexander, and Oliver C.S. Tzeng, "Design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for a Universe of the Near Environment-Chai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No. 4, 1978, pp.293~304.
- Alta N. Lane and K. kay Stewart, "Typical Chairs 1949~1968: An Analysis of Style and Evolu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9, No. 1, September 1980, pp.36~44.
- Canter David, "Psychology and the Built Environment", *Architectural Press*, 1974.
- Engel, J.F., Kollar, D.T., and Blackwell, R.D. 'Consumer Behavior, Holt Renehart and Winston Inc., 1968.
- Huff, John A.,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elected Variables on Preference for the Familiar in the Context of Furniture Sele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1976.
- Pye, David, *The Nature and Aesthetics of Design*, The Herbert Press, 1983.
- Read, Herbert, *Art and Indust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1.
- Sven, Hesselgren, *Man's Perception of Man-made Environment*, Dowden, Hutchinson and Ross, Inc., 1975.